

여순사건 특별법 4년...사건 접수만 하고 사실상 ‘멈춤’

전남도 실무위 1만879건 접수...중앙위 3776건 심의 완료
1년 남았는데 처리 30%대 불과...기한내 처리 불가능
정권교체 이후에도 2기 진상보고서 기획단 출범도 못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의 법적 진상 규명 조사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도, 진상조사 처리율은 3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 된 데다 진상조사 개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범 이래 3년여 동안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총 1만879건으로, 이 중 3776건(34.7%)을 처리 완료했다. 각각 인용 2596건, 기각 104건, 기타(중복·취하 등) 1076건 등이다.

여순사건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위에서 1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재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희생자 신고 7103건 중 2671건은 실무위 조사를 마치고 중앙위로 전달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조사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위는 현행법상 오는 2026년 10월 5일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기한이 종료된다. 이후로는 최대 1년여 동안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만 주어진다. 1년에 10% 수준의 진척밖에 내지 못하는 지금까지 속도로는 전체 신고 건의 절반도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 중앙위의 심의·의결 회의를 잘 열리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조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무위 조사 인력은 전문조사관 5명, 사실조사원 5명 등 10명 뿐이며, 각 시·군에 소속된 조사원들을 모두 합쳐도 47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위는 심의·의결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열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14회밖에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4개월 동안 단 1회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더구나 중앙위원들은 7명의 위원이 1회당 10여건씩 처리하면서 한 달에 100~150건 정도만 심의하다보니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상욱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조사관은 “며 ‘실무위원회 조사인력도 부족한 데다, 실무위에서 심의·의결돼 올라간 안건을 중앙위가 이중 검토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현재 3차까지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 1, 2차 신고 건 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1, 2차 신고 건에 대한 실무위 조사라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 처리 속도로 내년 10월까지 심사를 끝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낮은 처리율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심사 인력 부족과 중앙위의 이중 검토 시스템 중 하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인력도 여전히 정해지지 못했다.

제1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지난 2023년 12월 당연직 5명(정부 부처·전남도 국장급 공무원), 단장을 포함한 위촉직 10명 등 15명으로 출범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으로 나서는 등 보수·뉴라이프(보수우익집단)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유족들의 반발을 산 끝에 지난 4월 해산됐다.

2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출범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형용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1기 유족 대표 단원은 “진상 조사와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희생자 결정, 유해 발굴 등 주요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진상조사에 뚜렷한 진척이나 변화가 없고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 역시 인선만 완료됐을 뿐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충장축제 금남로 화려한 퍼레이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폐막을 하루 앞둔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롯데월드 퍼레이드팀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단체 “노태우 불법 비자금 철저히 조사·몰수하라”

신군부 비자금 전면 재조사 촉구

노태우씨가 SK에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노씨의 불법 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노태우 등 신군부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노씨의 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

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5·18 단체들은 “노씨의 비자금 300억원이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국가권력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며, 범위와 용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음

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 조성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비자금과 특혜를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비자금 조사 및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의해 조성된 불법 비자금을 공소시효 등과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도 분명해졌다”며 “이 기회에 그동안 역사왜곡과 폄훼,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부정에 앞장서 온 극우세력들의 뒷배가 이 불법적인 자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 역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 모욕성 글 올린 누리꾼들 고소

KIA 타이거즈 선수 박찬호(30)씨가 자신과 가족을 욕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8월 중순께 박씨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커뮤니티에 박씨와 그의 가족을 향한 욕설 등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누리꾼 5명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시, 안양시 등 타 지역 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 초겨울 날씨...아침 기온 10도 ‘뚝’

20일부터 광주·전남의 기온이 전날 대비 5~10도 이상 떨어지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3일까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19일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14도, 최고 21~23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7~14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 수준에 머무르겠으며,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보

이겠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가 크고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해 면역력 등이 저하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